

배포 일시	2023. 1. 27.(금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관	책임자	과 장 안세희 (044-201-3526)
	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사무관 곽인영 (044-201-3530)
보도일시	2023년 1월 3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페루·파나마 등 중남미에도 팀 코리아 달린다

- 이원재 1차관 단장으로 도로·철도 분야 인프라 수주 지원활동 전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은 1월 30(월)부터 2월 2일(목)까지 페루와 파나마 등 중남미 2개 국가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(한국 컨소시엄)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,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,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
< 방문국별 주요 일정 >

1. 페루(1.30~2.1) : ①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, ② 리마-까야오 도시교통청장 면담, ③ 국가도로청장 면담, ④ 쿠스코 주지사 면담, ⑤ 진출기업 간담회
2. 파나마(2.2) : ①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, ②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현장 방문

< 페루(리마) 방문 : 1.30.(월)~2.1.(수) >

- 이 차관은 **빠올라 라사르테(Paola Lazarte)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**과 **알렉세이 오블리타스(Alexei Oblitas) 국가도로청장**을 면담하고, 페루 정부가 발주한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**총괄관리사업***(PMO, Project Management Office)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* 발주처 : 국가도로청 / 총 214km, 3개 구간 / 총공사비 : 약 3억 달러(3천 7백억 원)
/ 총괄관리(PMO) 용역비 200억원 추정 / '23.2.15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(예정)

* PMO 역할 : 발주처를 대신하여 국제입찰 및 계약관리(용역, 시공, 감리),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관리 지원, 품질·가격·공정 관리, 기술 지원 및 이전 등 시행

○ 페루 정부가 정부간 계약 방식(G2G)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도로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엔지니어링 전문기업(도화엔지니어링)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하였다.

○ 팀코리아는 본 도로사업을 높은 품질로 완성시키고 설계, 건설, 유지관리 전 단계에 대한 기술이전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페루 교통인프라 관리역량을 강화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.

□ 또한, 이 차관은 메트로 사업 발주처인 리마-까야오 도시교통청(Authority of Urban Transport for Lima and Callao) 마리아 하라(María Jara) 청장을 면담하여 리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국가철도공단 등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과 함께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.

○ 면담 후에는 리마 메트로 2호선 건설 현장을 찾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관계자들도 격려할 계획이다.

□ 이 외에도, 웨르넬 살세도(Werner Salcedo) 쿠스코주 주지사를 만나, 우리 기업이 총괄관리용역과 건설사업 시공에 참여 중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, 최근 페루 남부지역 시위 확산에 따라 우리 인력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쿠스코 주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.

< 파나마(파나마시티) 방문 : 2.2.(목) >

□ 이 차관은 라파엘 사봉헤(Rafael Sabonge)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을 면담하고, 인프라 분야 양국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.

- 현재 파나마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인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활발해진 상황에서, 이를 이어갈 후속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.
- 또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,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우리나라 건설 파견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.
- 이 차관은 “이번 중남미 수주지원단 파견은 윤석열 정부의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, 해외건설의 신시장 발굴을 위해 마련한 계기”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,
- “페루·파나마와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면서 고부가가치 PMO 시장 진출과 민관협력사업 등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